집 샀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부모님 집에 잠시 얹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에게 2주택자가 됐다며 취득세를 8% 내 하네요 첫 집 구매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"(서울 하계동 아파트 매수자 30대 김 모씨)

"내 가족이 편히 누울 자리 하나 얻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아파트(지분)를 19일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적격이라니요 "(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50대 A씨)

시장 안정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줄 잇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다주택자들 겨냥 것 여겨졌지만 이제 무주택자와 예비 1주택자들도 `규제를 모르면 망한다`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선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택 수요자들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

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`다주택자 취득세 중과` 규정 생애 첫 주택 마련 이들 중에서 위장전입 하지 않아 뜻밖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첫 집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주민등록 체계상 `1가구 주택 수`는 가구주(부모)와 가구원(자식) 모두를 넣어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1주택자인 경우 가구원 있는 자식이 첫 집 마련해도 `2주택자`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 7·10 부동산 대책 때 2주택자에겐 8% 3주택 이상에는 12%로 높은 취득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

지난 7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인근 아파트를 4억원대에 매수 김 모씨도 최근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8% 내야 한다는 사실 통지받았다 김씨는 "잔금 처리일이 기준이라는 법무사 조언 받고 급 대로 세대분리 신청 위해 인근 조그마 공실 알아보고 있다"며 "차라리 위장전입 해서라도 취득세 8%를 안 냈어야 했다는 생각뿐"이 밝혔다

만 3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세대분리 요건조차 까다로워 부모가 1주택자라면 새로 집 취득할 경우 소득요건(중위소득 40%·연 840만원) 만족해야 한다

민원이 잦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`취득일` 기준 세대분리가 가능할 경우 해당 세대는 1주택자로 보라는 특례를 적용하라는 내용 담은 공문 각 지자체에 보냈다 하지만 현장 주민센터 여전히 2주택 세율(8%)이 적용된다고 안내받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

청약시장 과열에 따라 청약 부정행위에 대 제재도 철저하다 청약 조건도 따져보지 않고 `묻지마 청약` 했다가 당첨 기회를 날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주택 지분 1%만 가지고 있더라도 또 그 주택 가액이 낮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

부산 50대 여성은 최근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다 이 청원인은 "배우자가 2019년 7월 부산 23평 주공아파트 100분 1 지분 19일간 소유했다는 이유로 첫 아파트 청약 당첨에서 부적격 처리됐다"며 "경제 파탄 2012년 배우자와 별거했고 이 때문에 배우자 주택 지분 보유 사실도 몰랐다"고 주장했다

그는 "주택공급에 관 규칙 53조 단서 5호에 의하면 20㎡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지분 1주택 본다"고 호소했다 그는 "국토교통부는 1평 소유하든 하루를 보유하든 등기부등본에 이름만 올라가면 1주택 본다"고 토로했다

집 샀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부모님 집에 잠시 얹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에게 2주택자가 됐다며 취득세를 8% 내 하네요 첫 집 구매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"(서울 하계동 아파트 매수자 30대 김 모씨)

"내 가족이 편히 누울 자리 하나 얻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아파트(지분)를 19일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적격이라니요 "(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50대 A씨)

시장 안정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줄 잇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다주택자들 겨냥 것 여겨졌지만 이제 무주택자와 예비 1주택자들도 `규제를 모르면 망한다`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선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택 수요자들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

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`다주택자 취득세 중과` 규정 생애 첫 주택 마련 이들 중에서 위장전입 하지 않아 뜻밖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첫 집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주민등록 체계상 `1가구 주택 수`는 가구주(부모)와 가구원(자식) 모두를 넣어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1주택자인 경우 가구원 있는 자식이 첫 집 마련해도 `2주택자`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 7·10 부동산 대책 때 2주택자에겐 8% 3주택 이상에는 12%로 높은 취득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

지난 7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인근 아파트를 4억원대에 매수 김 모씨도 최근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8% 내야 한다는 사실 통지받았다 김씨는 "잔금 처리일이 기준이라는 법무사 조언 받고 급 대로 세대분리 신청 위해 인근 조그마 공실 알아보고 있다"며 "차라리 위장전입 해서라도 취득세 8%를 안 냈어야 했다는 생각뿐"이 밝혔다

만 3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세대분리 요건조차 까다로워 부모가 1주택자라면 새로 집 취득할 경우 소득요건(중위소득 40%·연 840만원) 만족해야 한다

민원이 잦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`취득일` 기준 세대분리가 가능할 경우 해당 세대는 1주택자로 보라는 특례를 적용하라는 내용 담은 공문 각 지자체에 보냈다 하지만 현장 주민센터 여전히 2주택 세율(8%)이 적용된다고 안내받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

청약시장 과열에 따라 청약 부정행위에 대 제재도 철저하다 청약 조건도 따져보지 않고 `묻지마 청약` 했다가 당첨 기회를 날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주택 지분 1%만 가지고 있더라도 또 그 주택 가액이 낮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

부산 50대 여성은 최근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다 이 청원인은 "배우자가 2019년 7월 부산 23평 주공아파트 100분 1 지분 19일간 소유했다는 이유로 첫 아파트 청약 당첨에서 부적격 처리됐다"며 "경제 파탄 2012년 배우자와 별거했고 이 때문에 배우자 주택 지분 보유 사실도 몰랐다"고 주장했다

그는 "주택공급에 관 규칙 53조 단서 5호에 의하면 20㎡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지분 1주택 본다"고 호소했다 그는 "국토교통부는 1평 소유하든 하루를 보유하든 등기부등본에 이름만 올라가면 1주택 본다"고 토로했다

집 샀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부모님 집에 잠시 얹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에게 2주택자가 됐다며 취득세를 8% 내 하네요 첫 집 구매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"(서울 하계동 아파트 매수자 30대 김 모씨)

"내 가족이 편히 누울 자리 하나 얻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아파트(지분)를 19일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적격이라니요 "(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50대 A씨)

시장 안정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줄 잇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다주택자들 겨냥 것 여겨졌지만 이제 무주택자와 예비 1주택자들도 `규제를 모르면 망한다`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선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택 수요자들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

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`다주택자 취득세 중과` 규정 생애 첫 주택 마련 이들 중에서 위장전입 하지 않아 뜻밖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첫 집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주민등록 체계상 `1가구 주택 수`는 가구주(부모)와 가구원(자식) 모두를 넣어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1주택자인 경우 가구원 있는 자식이 첫 집 마련해도 `2주택자`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 7·10 부동산 대책 때 2주택자에겐 8% 3주택 이상에는 12%로 높은 취득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

지난 7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인근 아파트를 4억원대에 매수 김 모씨도 최근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8% 내야 한다는 사실 통지받았다 김씨는 "잔금 처리일이 기준이라는 법무사 조언 받고 급 대로 세대분리 신청 위해 인근 조그마 공실 알아보고 있다"며 "차라리 위장전입 해서라도 취득세 8%를 안 냈어야 했다는 생각뿐"이 밝혔다

만 3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세대분리 요건조차 까다로워 부모가 1주택자라면 새로 집 취득할 경우 소득요건(중위소득 40%·연 840만원) 만족해야 한다

민원이 잦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`취득일` 기준 세대분리가 가능할 경우 해당 세대는 1주택자로 보라는 특례를 적용하라는 내용 담은 공문 각 지자체에 보냈다 하지만 현장 주민센터 여전히 2주택 세율(8%)이 적용된다고 안내받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

청약시장 과열에 따라 청약 부정행위에 대 제재도 철저하다 청약 조건도 따져보지 않고 `묻지마 청약` 했다가 당첨 기회를 날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주택 지분 1%만 가지고 있더라도 또 그 주택 가액이 낮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

부산 50대 여성은 최근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다 이 청원인은 "배우자가 2019년 7월 부산 23평 주공아파트 100분 1 지분 19일간 소유했다는 이유로 첫 아파트 청약 당첨에서 부적격 처리됐다"며 "경제 파탄 2012년 배우자와 별거했고 이 때문에 배우자 주택 지분 보유 사실도 몰랐다"고 주장했다

그는 "주택공급에 관 규칙 53조 단서 5호에 의하면 20㎡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지분 1주택 본다"고 호소했다 그는 "국토교통부는 1평 소유하든 하루를 보유하든 등기부등본에 이름만 올라가면 1주택 본다"고 토로했다

집 샀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부모님 집에 잠시 얹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에게 2주택자가 됐다며 취득세를 8% 내 하네요 첫 집 구매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"(서울 하계동 아파트 매수자 30대 김 모씨)

"내 가족이 편히 누울 자리 하나 얻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아파트(지분)를 19일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적격이라니요 "(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50대 A씨)

시장 안정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줄 잇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다주택자들 겨냥 것 여겨졌지만 이제 무주택자와 예비 1주택자들도 `규제를 모르면 망한다`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선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택 수요자들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

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`다주택자 취득세 중과` 규정 생애 첫 주택 마련 이들 중에서 위장전입 하지 않아 뜻밖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첫 집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주민등록 체계상 `1가구 주택 수`는 가구주(부모)와 가구원(자식) 모두를 넣어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1주택자인 경우 가구원 있는 자식이 첫 집 마련해도 `2주택자`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 7·10 부동산 대책 때 2주택자에겐 8% 3주택 이상에는 12%로 높은 취득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

지난 7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인근 아파트를 4억원대에 매수 김 모씨도 최근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8% 내야 한다는 사실 통지받았다 김씨는 "잔금 처리일이 기준이라는 법무사 조언 받고 급 대로 세대분리 신청 위해 인근 조그마 공실 알아보고 있다"며 "차라리 위장전입 해서라도 취득세 8%를 안 냈어야 했다는 생각뿐"이 밝혔다

만 3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세대분리 요건조차 까다로워 부모가 1주택자라면 새로 집 취득할 경우 소득요건(중위소득 40%·연 840만원) 만족해야 한다

민원이 잦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`취득일` 기준 세대분리가 가능할 경우 해당 세대는 1주택자로 보라는 특례를 적용하라는 내용 담은 공문 각 지자체에 보냈다 하지만 현장 주민센터 여전히 2주택 세율(8%)이 적용된다고 안내받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

청약시장 과열에 따라 청약 부정행위에 대 제재도 철저하다 청약 조건도 따져보지 않고 `묻지마 청약` 했다가 당첨 기회를 날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주택 지분 1%만 가지고 있더라도 또 그 주택 가액이 낮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

부산 50대 여성은 최근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다 이 청원인은 "배우자가 2019년 7월 부산 23평 주공아파트 100분 1 지분 19일간 소유했다는 이유로 첫 아파트 청약 당첨에서 부적격 처리됐다"며 "경제 파탄 2012년 배우자와 별거했고 이 때문에 배우자 주택 지분 보유 사실도 몰랐다"고 주장했다

그는 "주택공급에 관 규칙 53조 단서 5호에 의하면 20㎡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지분 1주택 본다"고 호소했다 그는 "국토교통부는 1평 소유하든 하루를 보유하든 등기부등본에 이름만 올라가면 1주택 본다"고 토로했다

집 샀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부모님 집에 잠시 얹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에게 2주택자가 됐다며 취득세를 8% 내 하네요 첫 집 구매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"(서울 하계동 아파트 매수자 30대 김 모씨)

"내 가족이 편히 누울 자리 하나 얻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아파트(지분)를 19일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적격이라니요 "(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50대 A씨)

시장 안정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줄 잇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다주택자들 겨냥 것 여겨졌지만 이제 무주택자와 예비 1주택자들도 `규제를 모르면 망한다`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선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택 수요자들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

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`다주택자 취득세 중과` 규정 생애 첫 주택 마련 이들 중에서 위장전입 하지 않아 뜻밖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첫 집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주민등록 체계상 `1가구 주택 수`는 가구주(부모)와 가구원(자식) 모두를 넣어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1주택자인 경우 가구원 있는 자식이 첫 집 마련해도 `2주택자`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 7·10 부동산 대책 때 2주택자에겐 8% 3주택 이상에는 12%로 높은 취득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

지난 7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인근 아파트를 4억원대에 매수 김 모씨도 최근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8% 내야 한다는 사실 통지받았다 김씨는 "잔금 처리일이 기준이라는 법무사 조언 받고 급 대로 세대분리 신청 위해 인근 조그마 공실 알아보고 있다"며 "차라리 위장전입 해서라도 취득세 8%를 안 냈어야 했다는 생각뿐"이 밝혔다

만 3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세대분리 요건조차 까다로워 부모가 1주택자라면 새로 집 취득할 경우 소득요건(중위소득 40%·연 840만원) 만족해야 한다

민원이 잦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`취득일` 기준 세대분리가 가능할 경우 해당 세대는 1주택자로 보라는 특례를 적용하라는 내용 담은 공문 각 지자체에 보냈다 하지만 현장 주민센터 여전히 2주택 세율(8%)이 적용된다고 안내받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

청약시장 과열에 따라 청약 부정행위에 대 제재도 철저하다 청약 조건도 따져보지 않고 `묻지마 청약` 했다가 당첨 기회를 날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주택 지분 1%만 가지고 있더라도 또 그 주택 가액이 낮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

부산 50대 여성은 최근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다 이 청원인은 "배우자가 2019년 7월 부산 23평 주공아파트 100분 1 지분 19일간 소유했다는 이유로 첫 아파트 청약 당첨에서 부적격 처리됐다"며 "경제 파탄 2012년 배우자와 별거했고 이 때문에 배우자 주택 지분 보유 사실도 몰랐다"고 주장했다

그는 "주택공급에 관 규칙 53조 단서 5호에 의하면 20㎡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지분 1주택 본다"고 호소했다 그는 "국토교통부는 1평 소유하든 하루를 보유하든 등기부등본에 이름만 올라가면 1주택 본다"고 토로했다

집 샀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부모님 집에 잠시 얹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에게 2주택자가 됐다며 취득세를 8% 내 하네요 첫 집 구매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"(서울 하계동 아파트 매수자 30대 김 모씨)

"내 가족이 편히 누울 자리 하나 얻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아파트(지분)를 19일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적격이라니요 "(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50대 A씨)

시장 안정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줄 잇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다주택자들 겨냥 것 여겨졌지만 이제 무주택자와 예비 1주택자들도 `규제를 모르면 망한다`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선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택 수요자들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

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`다주택자 취득세 중과` 규정 생애 첫 주택 마련 이들 중에서 위장전입 하지 않아 뜻밖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첫 집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주민등록 체계상 `1가구 주택 수`는 가구주(부모)와 가구원(자식) 모두를 넣어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1주택자인 경우 가구원 있는 자식이 첫 집 마련해도 `2주택자`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 7·10 부동산 대책 때 2주택자에겐 8% 3주택 이상에는 12%로 높은 취득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

지난 7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인근 아파트를 4억원대에 매수 김 모씨도 최근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8% 내야 한다는 사실 통지받았다 김씨는 "잔금 처리일이 기준이라는 법무사 조언 받고 급 대로 세대분리 신청 위해 인근 조그마 공실 알아보고 있다"며 "차라리 위장전입 해서라도 취득세 8%를 안 냈어야 했다는 생각뿐"이 밝혔다

만 3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세대분리 요건조차 까다로워 부모가 1주택자라면 새로 집 취득할 경우 소득요건(중위소득 40%·연 840만원) 만족해야 한다

민원이 잦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`취득일` 기준 세대분리가 가능할 경우 해당 세대는 1주택자로 보라는 특례를 적용하라는 내용 담은 공문 각 지자체에 보냈다 하지만 현장 주민센터 여전히 2주택 세율(8%)이 적용된다고 안내받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

청약시장 과열에 따라 청약 부정행위에 대 제재도 철저하다 청약 조건도 따져보지 않고 `묻지마 청약` 했다가 당첨 기회를 날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주택 지분 1%만 가지고 있더라도 또 그 주택 가액이 낮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

부산 50대 여성은 최근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다 이 청원인은 "배우자가 2019년 7월 부산 23평 주공아파트 100분 1 지분 19일간 소유했다는 이유로 첫 아파트 청약 당첨에서 부적격 처리됐다"며 "경제 파탄 2012년 배우자와 별거했고 이 때문에 배우자 주택 지분 보유 사실도 몰랐다"고 주장했다

그는 "주택공급에 관 규칙 53조 단서 5호에 의하면 20㎡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지분 1주택 본다"고 호소했다 그는 "국토교통부는 1평 소유하든 하루를 보유하든 등기부등본에 이름만 올라가면 1주택 본다"고 토로했다

집 샀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부모님 집에 잠시 얹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에게 2주택자가 됐다며 취득세를 8% 내 하네요 첫 집 구매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"(서울 하계동 아파트 매수자 30대 김 모씨)

"내 가족이 편히 누울 자리 하나 얻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아파트(지분)를 19일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적격이라니요 "(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50대 A씨)

시장 안정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줄 잇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다주택자들 겨냥 것 여겨졌지만 이제 무주택자와 예비 1주택자들도 `규제를 모르면 망한다`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선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택 수요자들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

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`다주택자 취득세 중과` 규정 생애 첫 주택 마련 이들 중에서 위장전입 하지 않아 뜻밖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첫 집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주민등록 체계상 `1가구 주택 수`는 가구주(부모)와 가구원(자식) 모두를 넣어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1주택자인 경우 가구원 있는 자식이 첫 집 마련해도 `2주택자`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 7·10 부동산 대책 때 2주택자에겐 8% 3주택 이상에는 12%로 높은 취득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

지난 7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인근 아파트를 4억원대에 매수 김 모씨도 최근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8% 내야 한다는 사실 통지받았다 김씨는 "잔금 처리일이 기준이라는 법무사 조언 받고 급 대로 세대분리 신청 위해 인근 조그마 공실 알아보고 있다"며 "차라리 위장전입 해서라도 취득세 8%를 안 냈어야 했다는 생각뿐"이 밝혔다

만 3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세대분리 요건조차 까다로워 부모가 1주택자라면 새로 집 취득할 경우 소득요건(중위소득 40%·연 840만원) 만족해야 한다

민원이 잦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`취득일` 기준 세대분리가 가능할 경우 해당 세대는 1주택자로 보라는 특례를 적용하라는 내용 담은 공문 각 지자체에 보냈다 하지만 현장 주민센터 여전히 2주택 세율(8%)이 적용된다고 안내받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

청약시장 과열에 따라 청약 부정행위에 대 제재도 철저하다 청약 조건도 따져보지 않고 `묻지마 청약` 했다가 당첨 기회를 날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주택 지분 1%만 가지고 있더라도 또 그 주택 가액이 낮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

부산 50대 여성은 최근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다 이 청원인은 "배우자가 2019년 7월 부산 23평 주공아파트 100분 1 지분 19일간 소유했다는 이유로 첫 아파트 청약 당첨에서 부적격 처리됐다"며 "경제 파탄 2012년 배우자와 별거했고 이 때문에 배우자 주택 지분 보유 사실도 몰랐다"고 주장했다

그는 "주택공급에 관 규칙 53조 단서 5호에 의하면 20㎡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지분 1주택 본다"고 호소했다 그는 "국토교통부는 1평 소유하든 하루를 보유하든 등기부등본에 이름만 올라가면 1주택 본다"고 토로했다

집 샀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부모님 집에 잠시 얹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에게 2주택자가 됐다며 취득세를 8% 내 하네요 첫 집 구매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"(서울 하계동 아파트 매수자 30대 김 모씨)

"내 가족이 편히 누울 자리 하나 얻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아파트(지분)를 19일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적격이라니요 "(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50대 A씨)

시장 안정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줄 잇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다주택자들 겨냥 것 여겨졌지만 이제 무주택자와 예비 1주택자들도 `규제를 모르면 망한다`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선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택 수요자들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

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`다주택자 취득세 중과` 규정 생애 첫 주택 마련 이들 중에서 위장전입 하지 않아 뜻밖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첫 집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주민등록 체계상 `1가구 주택 수`는 가구주(부모)와 가구원(자식) 모두를 넣어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1주택자인 경우 가구원 있는 자식이 첫 집 마련해도 `2주택자`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 7·10 부동산 대책 때 2주택자에겐 8% 3주택 이상에는 12%로 높은 취득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

지난 7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인근 아파트를 4억원대에 매수 김 모씨도 최근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8% 내야 한다는 사실 통지받았다 김씨는 "잔금 처리일이 기준이라는 법무사 조언 받고 급 대로 세대분리 신청 위해 인근 조그마 공실 알아보고 있다"며 "차라리 위장전입 해서라도 취득세 8%를 안 냈어야 했다는 생각뿐"이 밝혔다

만 3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세대분리 요건조차 까다로워 부모가 1주택자라면 새로 집 취득할 경우 소득요건(중위소득 40%·연 840만원) 만족해야 한다

민원이 잦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`취득일` 기준 세대분리가 가능할 경우 해당 세대는 1주택자로 보라는 특례를 적용하라는 내용 담은 공문 각 지자체에 보냈다 하지만 현장 주민센터 여전히 2주택 세율(8%)이 적용된다고 안내받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

청약시장 과열에 따라 청약 부정행위에 대 제재도 철저하다 청약 조건도 따져보지 않고 `묻지마 청약` 했다가 당첨 기회를 날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주택 지분 1%만 가지고 있더라도 또 그 주택 가액이 낮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

부산 50대 여성은 최근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다 이 청원인은 "배우자가 2019년 7월 부산 23평 주공아파트 100분 1 지분 19일간 소유했다는 이유로 첫 아파트 청약 당첨에서 부적격 처리됐다"며 "경제 파탄 2012년 배우자와 별거했고 이 때문에 배우자 주택 지분 보유 사실도 몰랐다"고 주장했다

그는 "주택공급에 관 규칙 53조 단서 5호에 의하면 20㎡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지분 1주택 본다"고 호소했다 그는 "국토교통부는 1평 소유하든 하루를 보유하든 등기부등본에 이름만 올라가면 1주택 본다"고 토로했다

집 샀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부모님 집에 잠시 얹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에게 2주택자가 됐다며 취득세를 8% 내 하네요 첫 집 구매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"(서울 하계동 아파트 매수자 30대 김 모씨)

"내 가족이 편히 누울 자리 하나 얻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아파트(지분)를 19일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적격이라니요 "(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50대 A씨)

시장 안정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줄 잇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다주택자들 겨냥 것 여겨졌지만 이제 무주택자와 예비 1주택자들도 `규제를 모르면 망한다`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선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택 수요자들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

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`다주택자 취득세 중과` 규정 생애 첫 주택 마련 이들 중에서 위장전입 하지 않아 뜻밖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첫 집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주민등록 체계상 `1가구 주택 수`는 가구주(부모)와 가구원(자식) 모두를 넣어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1주택자인 경우 가구원 있는 자식이 첫 집 마련해도 `2주택자`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 7·10 부동산 대책 때 2주택자에겐 8% 3주택 이상에는 12%로 높은 취득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

지난 7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인근 아파트를 4억원대에 매수 김 모씨도 최근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8% 내야 한다는 사실 통지받았다 김씨는 "잔금 처리일이 기준이라는 법무사 조언 받고 급 대로 세대분리 신청 위해 인근 조그마 공실 알아보고 있다"며 "차라리 위장전입 해서라도 취득세 8%를 안 냈어야 했다는 생각뿐"이 밝혔다

만 3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세대분리 요건조차 까다로워 부모가 1주택자라면 새로 집 취득할 경우 소득요건(중위소득 40%·연 840만원) 만족해야 한다

민원이 잦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`취득일` 기준 세대분리가 가능할 경우 해당 세대는 1주택자로 보라는 특례를 적용하라는 내용 담은 공문 각 지자체에 보냈다 하지만 현장 주민센터 여전히 2주택 세율(8%)이 적용된다고 안내받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

청약시장 과열에 따라 청약 부정행위에 대 제재도 철저하다 청약 조건도 따져보지 않고 `묻지마 청약` 했다가 당첨 기회를 날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주택 지분 1%만 가지고 있더라도 또 그 주택 가액이 낮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

부산 50대 여성은 최근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다 이 청원인은 "배우자가 2019년 7월 부산 23평 주공아파트 100분 1 지분 19일간 소유했다는 이유로 첫 아파트 청약 당첨에서 부적격 처리됐다"며 "경제 파탄 2012년 배우자와 별거했고 이 때문에 배우자 주택 지분 보유 사실도 몰랐다"고 주장했다

그는 "주택공급에 관 규칙 53조 단서 5호에 의하면 20㎡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지분 1주택 본다"고 호소했다 그는 "국토교통부는 1평 소유하든 하루를 보유하든 등기부등본에 이름만 올라가면 1주택 본다"고 토로했다

집 샀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부모님 집에 잠시 얹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에게 2주택자가 됐다며 취득세를 8% 내 하네요 첫 집 구매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"(서울 하계동 아파트 매수자 30대 김 모씨)

"내 가족이 편히 누울 자리 하나 얻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아파트(지분)를 19일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적격이라니요 "(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50대 A씨)

시장 안정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줄 잇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다주택자들 겨냥 것 여겨졌지만 이제 무주택자와 예비 1주택자들도 `규제를 모르면 망한다`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선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택 수요자들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

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`다주택자 취득세 중과` 규정 생애 첫 주택 마련 이들 중에서 위장전입 하지 않아 뜻밖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첫 집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주민등록 체계상 `1가구 주택 수`는 가구주(부모)와 가구원(자식) 모두를 넣어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1주택자인 경우 가구원 있는 자식이 첫 집 마련해도 `2주택자`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 7·10 부동산 대책 때 2주택자에겐 8% 3주택 이상에는 12%로 높은 취득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

지난 7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인근 아파트를 4억원대에 매수 김 모씨도 최근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8% 내야 한다는 사실 통지받았다 김씨는 "잔금 처리일이 기준이라는 법무사 조언 받고 급 대로 세대분리 신청 위해 인근 조그마 공실 알아보고 있다"며 "차라리 위장전입 해서라도 취득세 8%를 안 냈어야 했다는 생각뿐"이 밝혔다

만 3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세대분리 요건조차 까다로워 부모가 1주택자라면 새로 집 취득할 경우 소득요건(중위소득 40%·연 840만원) 만족해야 한다

민원이 잦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`취득일` 기준 세대분리가 가능할 경우 해당 세대는 1주택자로 보라는 특례를 적용하라는 내용 담은 공문 각 지자체에 보냈다 하지만 현장 주민센터 여전히 2주택 세율(8%)이 적용된다고 안내받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

청약시장 과열에 따라 청약 부정행위에 대 제재도 철저하다 청약 조건도 따져보지 않고 `묻지마 청약` 했다가 당첨 기회를 날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주택 지분 1%만 가지고 있더라도 또 그 주택 가액이 낮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

부산 50대 여성은 최근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다 이 청원인은 "배우자가 2019년 7월 부산 23평 주공아파트 100분 1 지분 19일간 소유했다는 이유로 첫 아파트 청약 당첨에서 부적격 처리됐다"며 "경제 파탄 2012년 배우자와 별거했고 이 때문에 배우자 주택 지분 보유 사실도 몰랐다"고 주장했다

그는 "주택공급에 관 규칙 53조 단서 5호에 의하면 20㎡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지분 1주택 본다"고 호소했다 그는 "국토교통부는 1평 소유하든 하루를 보유하든 등기부등본에 이름만 올라가면 1주택 본다"고 토로했다

집 샀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부모님 집에 잠시 얹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에게 2주택자가 됐다며 취득세를 8% 내 하네요 첫 집 구매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"(서울 하계동 아파트 매수자 30대 김 모씨)

"내 가족이 편히 누울 자리 하나 얻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아파트(지분)를 19일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적격이라니요 "(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50대 A씨)

시장 안정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줄 잇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다주택자들 겨냥 것 여겨졌지만 이제 무주택자와 예비 1주택자들도 `규제를 모르면 망한다`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선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택 수요자들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

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`다주택자 취득세 중과` 규정 생애 첫 주택 마련 이들 중에서 위장전입 하지 않아 뜻밖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첫 집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주민등록 체계상 `1가구 주택 수`는 가구주(부모)와 가구원(자식) 모두를 넣어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1주택자인 경우 가구원 있는 자식이 첫 집 마련해도 `2주택자`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 7·10 부동산 대책 때 2주택자에겐 8% 3주택 이상에는 12%로 높은 취득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

지난 7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인근 아파트를 4억원대에 매수 김 모씨도 최근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8% 내야 한다는 사실 통지받았다 김씨는 "잔금 처리일이 기준이라는 법무사 조언 받고 급 대로 세대분리 신청 위해 인근 조그마 공실 알아보고 있다"며 "차라리 위장전입 해서라도 취득세 8%를 안 냈어야 했다는 생각뿐"이 밝혔다

만 3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세대분리 요건조차 까다로워 부모가 1주택자라면 새로 집 취득할 경우 소득요건(중위소득 40%·연 840만원) 만족해야 한다

민원이 잦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`취득일` 기준 세대분리가 가능할 경우 해당 세대는 1주택자로 보라는 특례를 적용하라는 내용 담은 공문 각 지자체에 보냈다 하지만 현장 주민센터 여전히 2주택 세율(8%)이 적용된다고 안내받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

청약시장 과열에 따라 청약 부정행위에 대 제재도 철저하다 청약 조건도 따져보지 않고 `묻지마 청약` 했다가 당첨 기회를 날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주택 지분 1%만 가지고 있더라도 또 그 주택 가액이 낮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

부산 50대 여성은 최근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다 이 청원인은 "배우자가 2019년 7월 부산 23평 주공아파트 100분 1 지분 19일간 소유했다는 이유로 첫 아파트 청약 당첨에서 부적격 처리됐다"며 "경제 파탄 2012년 배우자와 별거했고 이 때문에 배우자 주택 지분 보유 사실도 몰랐다"고 주장했다

그는 "주택공급에 관 규칙 53조 단서 5호에 의하면 20㎡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지분 1주택 본다"고 호소했다 그는 "국토교통부는 1평 소유하든 하루를 보유하든 등기부등본에 이름만 올라가면 1주택 본다"고 토로했다

집 샀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부모님 집에 잠시 얹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에게 2주택자가 됐다며 취득세를 8% 내 하네요 첫 집 구매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"(서울 하계동 아파트 매수자 30대 김 모씨)

"내 가족이 편히 누울 자리 하나 얻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아파트(지분)를 19일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적격이라니요 "(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50대 A씨)

시장 안정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줄 잇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다주택자들 겨냥 것 여겨졌지만 이제 무주택자와 예비 1주택자들도 `규제를 모르면 망한다`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선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택 수요자들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

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`다주택자 취득세 중과` 규정 생애 첫 주택 마련 이들 중에서 위장전입 하지 않아 뜻밖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첫 집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주민등록 체계상 `1가구 주택 수`는 가구주(부모)와 가구원(자식) 모두를 넣어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1주택자인 경우 가구원 있는 자식이 첫 집 마련해도 `2주택자`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 7·10 부동산 대책 때 2주택자에겐 8% 3주택 이상에는 12%로 높은 취득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

지난 7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인근 아파트를 4억원대에 매수 김 모씨도 최근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8% 내야 한다는 사실 통지받았다 김씨는 "잔금 처리일이 기준이라는 법무사 조언 받고 급 대로 세대분리 신청 위해 인근 조그마 공실 알아보고 있다"며 "차라리 위장전입 해서라도 취득세 8%를 안 냈어야 했다는 생각뿐"이 밝혔다

만 3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세대분리 요건조차 까다로워 부모가 1주택자라면 새로 집 취득할 경우 소득요건(중위소득 40%·연 840만원) 만족해야 한다

민원이 잦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`취득일` 기준 세대분리가 가능할 경우 해당 세대는 1주택자로 보라는 특례를 적용하라는 내용 담은 공문 각 지자체에 보냈다 하지만 현장 주민센터 여전히 2주택 세율(8%)이 적용된다고 안내받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

청약시장 과열에 따라 청약 부정행위에 대 제재도 철저하다 청약 조건도 따져보지 않고 `묻지마 청약` 했다가 당첨 기회를 날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주택 지분 1%만 가지고 있더라도 또 그 주택 가액이 낮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

부산 50대 여성은 최근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다 이 청원인은 "배우자가 2019년 7월 부산 23평 주공아파트 100분 1 지분 19일간 소유했다는 이유로 첫 아파트 청약 당첨에서 부적격 처리됐다"며 "경제 파탄 2012년 배우자와 별거했고 이 때문에 배우자 주택 지분 보유 사실도 몰랐다"고 주장했다

그는 "주택공급에 관 규칙 53조 단서 5호에 의하면 20㎡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지분 1주택 본다"고 호소했다 그는 "국토교통부는 1평 소유하든 하루를 보유하든 등기부등본에 이름만 올라가면 1주택 본다"고 토로했다

집 샀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부모님 집에 잠시 얹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에게 2주택자가 됐다며 취득세를 8% 내 하네요 첫 집 구매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"(서울 하계동 아파트 매수자 30대 김 모씨)

"내 가족이 편히 누울 자리 하나 얻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아파트(지분)를 19일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적격이라니요 "(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50대 A씨)

시장 안정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줄 잇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다주택자들 겨냥 것 여겨졌지만 이제 무주택자와 예비 1주택자들도 `규제를 모르면 망한다`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선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택 수요자들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

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`다주택자 취득세 중과` 규정 생애 첫 주택 마련 이들 중에서 위장전입 하지 않아 뜻밖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첫 집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주민등록 체계상 `1가구 주택 수`는 가구주(부모)와 가구원(자식) 모두를 넣어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1주택자인 경우 가구원 있는 자식이 첫 집 마련해도 `2주택자`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 7·10 부동산 대책 때 2주택자에겐 8% 3주택 이상에는 12%로 높은 취득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

지난 7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인근 아파트를 4억원대에 매수 김 모씨도 최근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8% 내야 한다는 사실 통지받았다 김씨는 "잔금 처리일이 기준이라는 법무사 조언 받고 급 대로 세대분리 신청 위해 인근 조그마 공실 알아보고 있다"며 "차라리 위장전입 해서라도 취득세 8%를 안 냈어야 했다는 생각뿐"이 밝혔다

만 3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세대분리 요건조차 까다로워 부모가 1주택자라면 새로 집 취득할 경우 소득요건(중위소득 40%·연 840만원) 만족해야 한다

민원이 잦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`취득일` 기준 세대분리가 가능할 경우 해당 세대는 1주택자로 보라는 특례를 적용하라는 내용 담은 공문 각 지자체에 보냈다 하지만 현장 주민센터 여전히 2주택 세율(8%)이 적용된다고 안내받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

청약시장 과열에 따라 청약 부정행위에 대 제재도 철저하다 청약 조건도 따져보지 않고 `묻지마 청약` 했다가 당첨 기회를 날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주택 지분 1%만 가지고 있더라도 또 그 주택 가액이 낮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

부산 50대 여성은 최근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다 이 청원인은 "배우자가 2019년 7월 부산 23평 주공아파트 100분 1 지분 19일간 소유했다는 이유로 첫 아파트 청약 당첨에서 부적격 처리됐다"며 "경제 파탄 2012년 배우자와 별거했고 이 때문에 배우자 주택 지분 보유 사실도 몰랐다"고 주장했다

그는 "주택공급에 관 규칙 53조 단서 5호에 의하면 20㎡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지분 1주택 본다"고 호소했다 그는 "국토교통부는 1평 소유하든 하루를 보유하든 등기부등본에 이름만 올라가면 1주택 본다"고 토로했다

집 샀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부모님 집에 잠시 얹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에게 2주택자가 됐다며 취득세를 8% 내 하네요 첫 집 구매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"(서울 하계동 아파트 매수자 30대 김 모씨)

"내 가족이 편히 누울 자리 하나 얻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아파트(지분)를 19일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적격이라니요 "(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50대 A씨)

시장 안정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줄 잇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다주택자들 겨냥 것 여겨졌지만 이제 무주택자와 예비 1주택자들도 `규제를 모르면 망한다`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선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택 수요자들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

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`다주택자 취득세 중과` 규정 생애 첫 주택 마련 이들 중에서 위장전입 하지 않아 뜻밖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첫 집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주민등록 체계상 `1가구 주택 수`는 가구주(부모)와 가구원(자식) 모두를 넣어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1주택자인 경우 가구원 있는 자식이 첫 집 마련해도 `2주택자`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 7·10 부동산 대책 때 2주택자에겐 8% 3주택 이상에는 12%로 높은 취득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

지난 7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인근 아파트를 4억원대에 매수 김 모씨도 최근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8% 내야 한다는 사실 통지받았다 김씨는 "잔금 처리일이 기준이라는 법무사 조언 받고 급 대로 세대분리 신청 위해 인근 조그마 공실 알아보고 있다"며 "차라리 위장전입 해서라도 취득세 8%를 안 냈어야 했다는 생각뿐"이 밝혔다

만 3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세대분리 요건조차 까다로워 부모가 1주택자라면 새로 집 취득할 경우 소득요건(중위소득 40%·연 840만원) 만족해야 한다

민원이 잦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`취득일` 기준 세대분리가 가능할 경우 해당 세대는 1주택자로 보라는 특례를 적용하라는 내용 담은 공문 각 지자체에 보냈다 하지만 현장 주민센터 여전히 2주택 세율(8%)이 적용된다고 안내받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

청약시장 과열에 따라 청약 부정행위에 대 제재도 철저하다 청약 조건도 따져보지 않고 `묻지마 청약` 했다가 당첨 기회를 날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주택 지분 1%만 가지고 있더라도 또 그 주택 가액이 낮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

부산 50대 여성은 최근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다 이 청원인은 "배우자가 2019년 7월 부산 23평 주공아파트 100분 1 지분 19일간 소유했다는 이유로 첫 아파트 청약 당첨에서 부적격 처리됐다"며 "경제 파탄 2012년 배우자와 별거했고 이 때문에 배우자 주택 지분 보유 사실도 몰랐다"고 주장했다

그는 "주택공급에 관 규칙 53조 단서 5호에 의하면 20㎡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지분 1주택 본다"고 호소했다 그는 "국토교통부는 1평 소유하든 하루를 보유하든 등기부등본에 이름만 올라가면 1주택 본다"고 토로했다

집 샀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부모님 집에 잠시 얹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에게 2주택자가 됐다며 취득세를 8% 내 하네요 첫 집 구매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"(서울 하계동 아파트 매수자 30대 김 모씨)

"내 가족이 편히 누울 자리 하나 얻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아파트(지분)를 19일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적격이라니요 "(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50대 A씨)

시장 안정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줄 잇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다주택자들 겨냥 것 여겨졌지만 이제 무주택자와 예비 1주택자들도 `규제를 모르면 망한다`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선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택 수요자들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

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`다주택자 취득세 중과` 규정 생애 첫 주택 마련 이들 중에서 위장전입 하지 않아 뜻밖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첫 집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주민등록 체계상 `1가구 주택 수`는 가구주(부모)와 가구원(자식) 모두를 넣어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1주택자인 경우 가구원 있는 자식이 첫 집 마련해도 `2주택자`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 7·10 부동산 대책 때 2주택자에겐 8% 3주택 이상에는 12%로 높은 취득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

지난 7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인근 아파트를 4억원대에 매수 김 모씨도 최근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8% 내야 한다는 사실 통지받았다 김씨는 "잔금 처리일이 기준이라는 법무사 조언 받고 급 대로 세대분리 신청 위해 인근 조그마 공실 알아보고 있다"며 "차라리 위장전입 해서라도 취득세 8%를 안 냈어야 했다는 생각뿐"이 밝혔다

만 3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세대분리 요건조차 까다로워 부모가 1주택자라면 새로 집 취득할 경우 소득요건(중위소득 40%·연 840만원) 만족해야 한다

민원이 잦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`취득일` 기준 세대분리가 가능할 경우 해당 세대는 1주택자로 보라는 특례를 적용하라는 내용 담은 공문 각 지자체에 보냈다 하지만 현장 주민센터 여전히 2주택 세율(8%)이 적용된다고 안내받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

청약시장 과열에 따라 청약 부정행위에 대 제재도 철저하다 청약 조건도 따져보지 않고 `묻지마 청약` 했다가 당첨 기회를 날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주택 지분 1%만 가지고 있더라도 또 그 주택 가액이 낮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

부산 50대 여성은 최근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다 이 청원인은 "배우자가 2019년 7월 부산 23평 주공아파트 100분 1 지분 19일간 소유했다는 이유로 첫 아파트 청약 당첨에서 부적격 처리됐다"며 "경제 파탄 2012년 배우자와 별거했고 이 때문에 배우자 주택 지분 보유 사실도 몰랐다"고 주장했다

그는 "주택공급에 관 규칙 53조 단서 5호에 의하면 20㎡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지분 1주택 본다"고 호소했다 그는 "국토교통부는 1평 소유하든 하루를 보유하든 등기부등본에 이름만 올라가면 1주택 본다"고 토로했다

집 샀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부모님 집에 잠시 얹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에게 2주택자가 됐다며 취득세를 8% 내 하네요 첫 집 구매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"(서울 하계동 아파트 매수자 30대 김 모씨)

"내 가족이 편히 누울 자리 하나 얻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아파트(지분)를 19일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적격이라니요 "(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50대 A씨)

시장 안정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줄 잇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다주택자들 겨냥 것 여겨졌지만 이제 무주택자와 예비 1주택자들도 `규제를 모르면 망한다`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선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택 수요자들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

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`다주택자 취득세 중과` 규정 생애 첫 주택 마련 이들 중에서 위장전입 하지 않아 뜻밖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첫 집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주민등록 체계상 `1가구 주택 수`는 가구주(부모)와 가구원(자식) 모두를 넣어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1주택자인 경우 가구원 있는 자식이 첫 집 마련해도 `2주택자`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 7·10 부동산 대책 때 2주택자에겐 8% 3주택 이상에는 12%로 높은 취득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

지난 7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인근 아파트를 4억원대에 매수 김 모씨도 최근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8% 내야 한다는 사실 통지받았다 김씨는 "잔금 처리일이 기준이라는 법무사 조언 받고 급 대로 세대분리 신청 위해 인근 조그마 공실 알아보고 있다"며 "차라리 위장전입 해서라도 취득세 8%를 안 냈어야 했다는 생각뿐"이 밝혔다

만 3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세대분리 요건조차 까다로워 부모가 1주택자라면 새로 집 취득할 경우 소득요건(중위소득 40%·연 840만원) 만족해야 한다

민원이 잦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`취득일` 기준 세대분리가 가능할 경우 해당 세대는 1주택자로 보라는 특례를 적용하라는 내용 담은 공문 각 지자체에 보냈다 하지만 현장 주민센터 여전히 2주택 세율(8%)이 적용된다고 안내받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

청약시장 과열에 따라 청약 부정행위에 대 제재도 철저하다 청약 조건도 따져보지 않고 `묻지마 청약` 했다가 당첨 기회를 날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주택 지분 1%만 가지고 있더라도 또 그 주택 가액이 낮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

부산 50대 여성은 최근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다 이 청원인은 "배우자가 2019년 7월 부산 23평 주공아파트 100분 1 지분 19일간 소유했다는 이유로 첫 아파트 청약 당첨에서 부적격 처리됐다"며 "경제 파탄 2012년 배우자와 별거했고 이 때문에 배우자 주택 지분 보유 사실도 몰랐다"고 주장했다

그는 "주택공급에 관 규칙 53조 단서 5호에 의하면 20㎡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지분 1주택 본다"고 호소했다 그는 "국토교통부는 1평 소유하든 하루를 보유하든 등기부등본에 이름만 올라가면 1주택 본다"고 토로했다

집 샀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부모님 집에 잠시 얹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에게 2주택자가 됐다며 취득세를 8% 내 하네요 첫 집 구매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"(서울 하계동 아파트 매수자 30대 김 모씨)

"내 가족이 편히 누울 자리 하나 얻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아파트(지분)를 19일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적격이라니요 "(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50대 A씨)

시장 안정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줄 잇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다주택자들 겨냥 것 여겨졌지만 이제 무주택자와 예비 1주택자들도 `규제를 모르면 망한다`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선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택 수요자들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

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`다주택자 취득세 중과` 규정 생애 첫 주택 마련 이들 중에서 위장전입 하지 않아 뜻밖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첫 집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주민등록 체계상 `1가구 주택 수`는 가구주(부모)와 가구원(자식) 모두를 넣어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1주택자인 경우 가구원 있는 자식이 첫 집 마련해도 `2주택자`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 7·10 부동산 대책 때 2주택자에겐 8% 3주택 이상에는 12%로 높은 취득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

지난 7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인근 아파트를 4억원대에 매수 김 모씨도 최근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8% 내야 한다는 사실 통지받았다 김씨는 "잔금 처리일이 기준이라는 법무사 조언 받고 급 대로 세대분리 신청 위해 인근 조그마 공실 알아보고 있다"며 "차라리 위장전입 해서라도 취득세 8%를 안 냈어야 했다는 생각뿐"이 밝혔다

만 3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세대분리 요건조차 까다로워 부모가 1주택자라면 새로 집 취득할 경우 소득요건(중위소득 40%·연 840만원) 만족해야 한다

민원이 잦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`취득일` 기준 세대분리가 가능할 경우 해당 세대는 1주택자로 보라는 특례를 적용하라는 내용 담은 공문 각 지자체에 보냈다 하지만 현장 주민센터 여전히 2주택 세율(8%)이 적용된다고 안내받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

청약시장 과열에 따라 청약 부정행위에 대 제재도 철저하다 청약 조건도 따져보지 않고 `묻지마 청약` 했다가 당첨 기회를 날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주택 지분 1%만 가지고 있더라도 또 그 주택 가액이 낮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

부산 50대 여성은 최근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다 이 청원인은 "배우자가 2019년 7월 부산 23평 주공아파트 100분 1 지분 19일간 소유했다는 이유로 첫 아파트 청약 당첨에서 부적격 처리됐다"며 "경제 파탄 2012년 배우자와 별거했고 이 때문에 배우자 주택 지분 보유 사실도 몰랐다"고 주장했다

그는 "주택공급에 관 규칙 53조 단서 5호에 의하면 20㎡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지분 1주택 본다"고 호소했다 그는 "국토교통부는 1평 소유하든 하루를 보유하든 등기부등본에 이름만 올라가면 1주택 본다"고 토로했다

집 샀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부모님 집에 잠시 얹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에게 2주택자가 됐다며 취득세를 8% 내 하네요 첫 집 구매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"(서울 하계동 아파트 매수자 30대 김 모씨)

"내 가족이 편히 누울 자리 하나 얻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아파트(지분)를 19일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적격이라니요 "(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50대 A씨)

시장 안정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줄 잇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다주택자들 겨냥 것 여겨졌지만 이제 무주택자와 예비 1주택자들도 `규제를 모르면 망한다`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선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택 수요자들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

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`다주택자 취득세 중과` 규정 생애 첫 주택 마련 이들 중에서 위장전입 하지 않아 뜻밖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첫 집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주민등록 체계상 `1가구 주택 수`는 가구주(부모)와 가구원(자식) 모두를 넣어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1주택자인 경우 가구원 있는 자식이 첫 집 마련해도 `2주택자`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 7·10 부동산 대책 때 2주택자에겐 8% 3주택 이상에는 12%로 높은 취득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

지난 7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인근 아파트를 4억원대에 매수 김 모씨도 최근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8% 내야 한다는 사실 통지받았다 김씨는 "잔금 처리일이 기준이라는 법무사 조언 받고 급 대로 세대분리 신청 위해 인근 조그마 공실 알아보고 있다"며 "차라리 위장전입 해서라도 취득세 8%를 안 냈어야 했다는 생각뿐"이 밝혔다

만 3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세대분리 요건조차 까다로워 부모가 1주택자라면 새로 집 취득할 경우 소득요건(중위소득 40%·연 840만원) 만족해야 한다

민원이 잦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`취득일` 기준 세대분리가 가능할 경우 해당 세대는 1주택자로 보라는 특례를 적용하라는 내용 담은 공문 각 지자체에 보냈다 하지만 현장 주민센터 여전히 2주택 세율(8%)이 적용된다고 안내받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

청약시장 과열에 따라 청약 부정행위에 대 제재도 철저하다 청약 조건도 따져보지 않고 `묻지마 청약` 했다가 당첨 기회를 날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주택 지분 1%만 가지고 있더라도 또 그 주택 가액이 낮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

부산 50대 여성은 최근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다 이 청원인은 "배우자가 2019년 7월 부산 23평 주공아파트 100분 1 지분 19일간 소유했다는 이유로 첫 아파트 청약 당첨에서 부적격 처리됐다"며 "경제 파탄 2012년 배우자와 별거했고 이 때문에 배우자 주택 지분 보유 사실도 몰랐다"고 주장했다

그는 "주택공급에 관 규칙 53조 단서 5호에 의하면 20㎡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지분 1주택 본다"고 호소했다 그는 "국토교통부는 1평 소유하든 하루를 보유하든 등기부등본에 이름만 올라가면 1주택 본다"고 토로했다

집 샀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부모님 집에 잠시 얹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에게 2주택자가 됐다며 취득세를 8% 내 하네요 첫 집 구매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"(서울 하계동 아파트 매수자 30대 김 모씨)

"내 가족이 편히 누울 자리 하나 얻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아파트(지분)를 19일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적격이라니요 "(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50대 A씨)

시장 안정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줄 잇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다주택자들 겨냥 것 여겨졌지만 이제 무주택자와 예비 1주택자들도 `규제를 모르면 망한다`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선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택 수요자들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

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`다주택자 취득세 중과` 규정 생애 첫 주택 마련 이들 중에서 위장전입 하지 않아 뜻밖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첫 집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주민등록 체계상 `1가구 주택 수`는 가구주(부모)와 가구원(자식) 모두를 넣어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1주택자인 경우 가구원 있는 자식이 첫 집 마련해도 `2주택자`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 7·10 부동산 대책 때 2주택자에겐 8% 3주택 이상에는 12%로 높은 취득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

지난 7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인근 아파트를 4억원대에 매수 김 모씨도 최근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8% 내야 한다는 사실 통지받았다 김씨는 "잔금 처리일이 기준이라는 법무사 조언 받고 급 대로 세대분리 신청 위해 인근 조그마 공실 알아보고 있다"며 "차라리 위장전입 해서라도 취득세 8%를 안 냈어야 했다는 생각뿐"이 밝혔다

만 3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세대분리 요건조차 까다로워 부모가 1주택자라면 새로 집 취득할 경우 소득요건(중위소득 40%·연 840만원) 만족해야 한다

민원이 잦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`취득일` 기준 세대분리가 가능할 경우 해당 세대는 1주택자로 보라는 특례를 적용하라는 내용 담은 공문 각 지자체에 보냈다 하지만 현장 주민센터 여전히 2주택 세율(8%)이 적용된다고 안내받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

청약시장 과열에 따라 청약 부정행위에 대 제재도 철저하다 청약 조건도 따져보지 않고 `묻지마 청약` 했다가 당첨 기회를 날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주택 지분 1%만 가지고 있더라도 또 그 주택 가액이 낮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

부산 50대 여성은 최근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다 이 청원인은 "배우자가 2019년 7월 부산 23평 주공아파트 100분 1 지분 19일간 소유했다는 이유로 첫 아파트 청약 당첨에서 부적격 처리됐다"며 "경제 파탄 2012년 배우자와 별거했고 이 때문에 배우자 주택 지분 보유 사실도 몰랐다"고 주장했다

그는 "주택공급에 관 규칙 53조 단서 5호에 의하면 20㎡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지분 1주택 본다"고 호소했다 그는 "국토교통부는 1평 소유하든 하루를 보유하든 등기부등본에 이름만 올라가면 1주택 본다"고 토로했다

집 샀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부모님 집에 잠시 얹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에게 2주택자가 됐다며 취득세를 8% 내 하네요 첫 집 구매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"(서울 하계동 아파트 매수자 30대 김 모씨)

"내 가족이 편히 누울 자리 하나 얻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아파트(지분)를 19일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적격이라니요 "(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50대 A씨)

시장 안정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줄 잇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다주택자들 겨냥 것 여겨졌지만 이제 무주택자와 예비 1주택자들도 `규제를 모르면 망한다`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선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택 수요자들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

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`다주택자 취득세 중과` 규정 생애 첫 주택 마련 이들 중에서 위장전입 하지 않아 뜻밖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첫 집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주민등록 체계상 `1가구 주택 수`는 가구주(부모)와 가구원(자식) 모두를 넣어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1주택자인 경우 가구원 있는 자식이 첫 집 마련해도 `2주택자`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 7·10 부동산 대책 때 2주택자에겐 8% 3주택 이상에는 12%로 높은 취득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

지난 7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인근 아파트를 4억원대에 매수 김 모씨도 최근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8% 내야 한다는 사실 통지받았다 김씨는 "잔금 처리일이 기준이라는 법무사 조언 받고 급 대로 세대분리 신청 위해 인근 조그마 공실 알아보고 있다"며 "차라리 위장전입 해서라도 취득세 8%를 안 냈어야 했다는 생각뿐"이 밝혔다

만 3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세대분리 요건조차 까다로워 부모가 1주택자라면 새로 집 취득할 경우 소득요건(중위소득 40%·연 840만원) 만족해야 한다

민원이 잦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`취득일` 기준 세대분리가 가능할 경우 해당 세대는 1주택자로 보라는 특례를 적용하라는 내용 담은 공문 각 지자체에 보냈다 하지만 현장 주민센터 여전히 2주택 세율(8%)이 적용된다고 안내받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

청약시장 과열에 따라 청약 부정행위에 대 제재도 철저하다 청약 조건도 따져보지 않고 `묻지마 청약` 했다가 당첨 기회를 날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주택 지분 1%만 가지고 있더라도 또 그 주택 가액이 낮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

부산 50대 여성은 최근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다 이 청원인은 "배우자가 2019년 7월 부산 23평 주공아파트 100분 1 지분 19일간 소유했다는 이유로 첫 아파트 청약 당첨에서 부적격 처리됐다"며 "경제 파탄 2012년 배우자와 별거했고 이 때문에 배우자 주택 지분 보유 사실도 몰랐다"고 주장했다

그는 "주택공급에 관 규칙 53조 단서 5호에 의하면 20㎡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지분 1주택 본다"고 호소했다 그는 "국토교통부는 1평 소유하든 하루를 보유하든 등기부등본에 이름만 올라가면 1주택 본다"고 토로했다